

국내 청소년의 여가패턴 추적조사

지 현 진* · 김 진 희**

I. 서론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비추어진다. 이 시기 찾아오는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 변화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정체성 형성에 과중한 혼란을 빚으면서 자신들의 가치와 행동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만들곤 한다. 최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7년간 전국의 초중고생 자살자가 한 해 평균 109명이라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다(조현숙, 2007-09-29 10:26). 자살이유의 40%가 경제적 궁핍과 부모 불화와 같은 가족문제에서 비롯하고 있을 만큼 가정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은 부모의 문화나 지위, 관계 형태 등의 다양한 환경을 제공한다. Schmitt-Rodermund와 Vondracek(1999)은 객관적으로 측정된 가족의 상황보다는 청소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가족상황이 그들의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시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더라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의 50%가 ‘가정이 화목할 때’라 답하였다. 가정의 형태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이미 많이 발표된 바 있다. 부모의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들은 모험적인 여가활동에 적게 관여하고, 가족이 관심거리를 공유할수록 창조적인 여가활동에 관여한다고 한다(Meschke & Silbereisen, 1998). 또한 권위주의적인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혼자하는 활동을, 방임적인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집단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Garton, Harvey, & Price, 2004). 이외에도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구 월소득이 청소년의 여가유형에 영향을 주어 문화자본 축적의 성격이 강한 음악 비디오 감상이나 야외취미활동, 인쇄매체이용과 같은 여가활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국내연구결과도 있다(서우석, 2007).

‘화목한 가정을 가지는 것’ 못지않게 ‘좋은 친구가 있을 때’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청소년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데 기여한다(박성진, 2007-09-11 11:31). 이는 가정환경 못지않게 학교와 사회 환경 역시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Rapoport와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

** 경북대 중등교육연구소 연구교수

Rapoport(1975)는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심리적 욕구와 환경, 행위를 여가활동의 틀에서 조명하면서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해 저술한 바 있는데, 청소년 시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영역으로 역시 가정, 학교, 사회를 지목하고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제약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학업과 규율, 성적이 하나의 굴레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가치나 경험들이 학생 개개인의 관심을 촉발하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기 가정과 학교를 떠난 외부와의 관계, 상호작용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난다. 지역은 어떠한 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관계맺음을 한다.

Erikson(1998)이 9단계로 구분한 성장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다도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자 애쓰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게 된다. 특히 이 시기의 여가활동은 학교교육과 더불어 정체성 형성과 기여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을 배우는 일련의 사회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Coatsworth 외 (2005)는 미국, 이탈리아, 칠레 3개국 청소년들의 여가활동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학업이나 일과 같은 수단적 활동들은 사교나 예술, 스포츠와 같은 여타의 활동들에 비해 목적지향성은 높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개인표현감과 몰입감을 동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사교 활동은 목적지향성은 저조하지만 자기표현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이 국내 청소년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기보다는 특정여가(TV시청과 컴퓨터사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방과 후 활동장소로 ‘집’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발표하였다(김은미, 최명구, 2006; 이은희, 민현선, 2004). 청소년들의 주말여가활동 장소로는 ‘공원’과 ‘학교 운동장’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부공간을 이용하는 비중이 현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구원, 2006). 즉 학년이 높아지면서 입시부담으로 인한 시간적 압박이 커지고 결국 신체적 활동의 양이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여가는 자기계발이나 사회성 훈련보다도 심리적, 생리적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휴식적이고 유희적인 목적도 크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양선정, 2001; 이은희, 민현선, 2004). 여가는 자기실현 외에도 잉여에너지 소모와 탈출이라는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청소년기도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입시와 사교육의 열풍으로 인해 몸과 마음을 구속당한 학생들에게 여가는 에너지 소모와 탈출이라는 속성으로 작용했을 지 모른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행동들로 이어지기 쉽다. 청소년기의 여가정책은 일탈이나 방향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어느 시기보다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영국의 NCDS¹⁾와 BCS70²⁾가 1974년과 1986년에 16세였던 대상들을 그들이 30대였던 1991년과 2000년에 다시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는 청소년기의 여가패턴이 성인기 이후 미치

1) The 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

2) The 1970 British Cohort Study

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여가의 원시안적인 효과를 증명해주었다(Sacker & Cable, 2005). 이 연구는 청소년기 여가시간에 신체활동을 왕성하게 할수록 성인기에 권태감과 같은 이상 징후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청소년기의 여가는 당시의 정서적, 신체적 잉여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만들고, 다채롭게 구성해줄 지식과 기술을 비축하는 원시안적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여가에 대한 고찰은 당면한 문제 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4년간 추적 조사된 청소년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여가생활이 성장과정 속에서 어떠한 패턴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가가 청소년기에 갖는 의미와 기능 등을 집중 조명해보고, 바람직한 여가정책안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4차년도에 걸쳐 설문지를 통해 추적 조사한 것이다. 4차년도에 걸친 청소년들의 성장기간에 따라 그려지는 여가곡선을 그려보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다. 그리고 여가생활(시간, 장소, 공간)이 여가만족도, 자아관 형성을 거쳐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두 번째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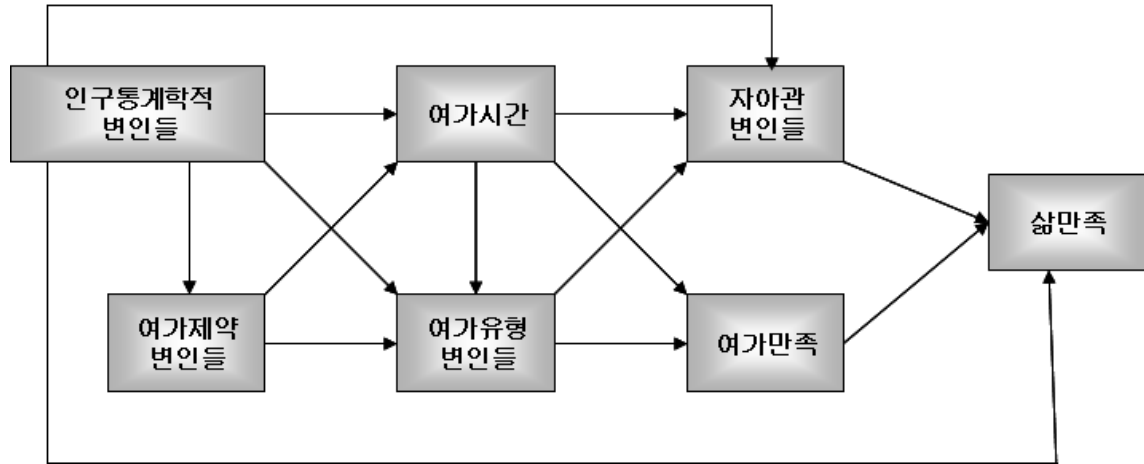
<연구문제 1>

동일한 청소년들에게 실시된 4차년도 자료에 입각하여, 하루시간 중 여가시간의 양, 여가유형, 여가제약, 여가만족감, 삶의 만족 등의 요인들의 추이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4년간의 성장 과정에 따른 여가곡선을 도출한다.

<연구문제 2>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여가제약 변인들이 여가생활(시간, 장소, 유형)에 미치는 영향; 여가생활(시간, 장소, 유형)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관과 여가만족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아래 그림). 4차년도의 데이터를 이 모형으로 각각 검

증함으로써 성장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변인들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2. 연구절차

1차년도 연구는 2003년 4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을 모집단으로 삼고,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에 의해 총 3,697명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차년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2, 3, 4차년도 연구엔 각각 3,449명의 청소년과 부모가 최종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청소년을 상대로 면접원들이 학교로 투입되어 집단별 면접조사(설문지)를, 부모들을 상대로는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 3, 4차년도 조사부터는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개인별로 추적하여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는 학생의 인적사항(거주지, 학교, 성별, 출생연도), 직업선택, 향후 진로, 진로준비, 여가, 일탈 및 기타, 생활시간배분, 자아관에 대한 항목들로, 부모를 대상의 설문은 가족구성, 동거여부, 학력, 직업, 근로형태, 다른가족구성형태, 월평균가구소득, 월평균 사교육비, 주거형태에 대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III. 연구결과

1. 성장과정에 따른 여가곡선

4차년도에 걸쳐 조사된 여가시간의 양, 여가유형, 여가제한,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란 각 변인들의 평균값을 기술분석을 통해 얻고, 대응표본 검정을 이용하여 각 연도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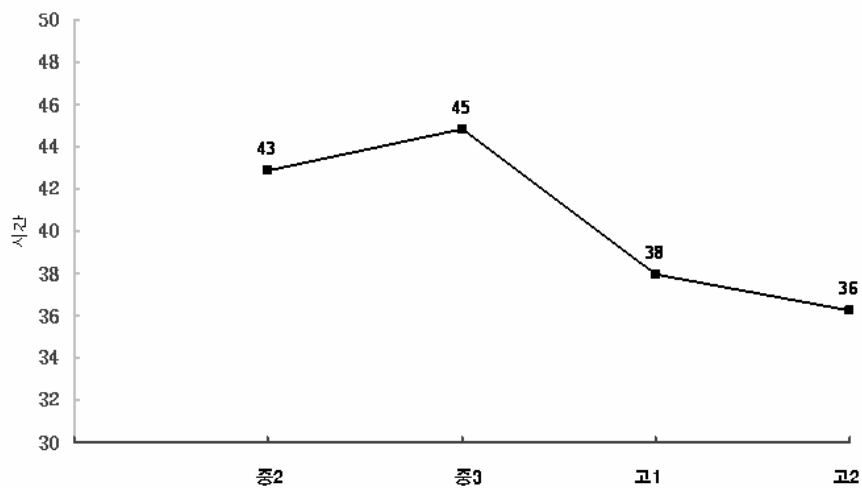
1) 여가시간

학생들이 일주일동안 여가시간으로 사용한 총시간인 주간여가시간은 생활시간 배분 영역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text{평일여가시간} \times 5 + \text{토요일여가시간} + \text{일요일여가시간}$ 으로 계산되었다. 학생들은 중2에서 중3으로 진급한 후 여가시간이 오히려 증가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각 구간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4차년간 주간여가시간 비교

	N	평균(시간)	대응비교 t검정
주간여가시간(중2)	2784	42.87	1<2, 1>3, 1>4
주간여가시간(중3)	2784	44.84	2>3, 2>4
주간여가시간(고1)	2784	37.97	
주간여가시간(고2)	2784	36.26	3>4

주: 대응비교 t검정안의 숫자는 연도수를 의미하며, 각 연도간의 평균시간의 차이는 모두 $p < .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4차년간 주간여가시간 추이

2) 여가유형

학생들은 설문지에 제시된 총 53가지의 여가유형을 토대로 주로 하는 여가활동 3가지를 개방형으로 답하였으며, 이 중 한번이라도 언급된 활동은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모두 포함시켰다. 이를 요인분석하여 30여개의 범주로 묶었으며, 다시 본 연구의 분석에 용이하도록 이를

모두 12가지 유형으로 범주화시켰다. 유형별 평균은 한번이라도 언급된 노출빈도수를 바탕으로 매겨진 %이다. 그러므로 통계분석 시 이는 학년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여가활동의 증감보다는 그것이 3가지 주요여가활동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도출된 여가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대중매체이용: 텔레비전시청, 라디오청취, 신문잡지읽기, 비디오/DVD감상
- ②취미교양활동: 노래방, 악기연주, 독서, 원예, 사진, 공예, 동호회
- ③휴양휴식활동: 산책, 수면, 담소, 명상, 빈둥거림
- ④PC이용: 온라인, pc게임, 인터넷서핑, 인터넷채팅
- ⑤신체활동: 춤추기, 등산, 구기종목, 롤러/인라인, 자전거, 격투기, 복싱, 수영, 검도, 헬스, 골프, 스키, 스케이트
- ⑥관람활동: 스포츠관람, 영화관람(극장), 연극(무용)관람, 전시회관람, 음악회관람
- ⑦휴대폰이용: 문자보내기, 통화하기
- ⑧도박잡기: 도박(경륜, 경마, 블랙잭 등), 잡기(바둑, 화투)
- ⑨음주흡연: 음주, 흡연
- ⑩여행: 여행(관광)
- ⑪종교활동
- ⑫봉사활동

각 학년에 따라 주요 여가활동으로 등장한 여가활동 유형들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주요 여가활동으로서 PC이용, 대중매체이용, 취미교양활동, 휴양휴식활동 순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중학 시절에는 그 다음 순위로 신체여가활동, 관람활동이 등장하였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관람활동, 신체활동 순으로 뒤바뀌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1) 대중매체이용

대중매체이용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더 증가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1> 4차년간 대중매체이용 여가활동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대중매체이용(중2)	2796	57	중2<중3**
대중매체이용(중3)	2796	62	
대중매체이용(고1)	2796	61	중2<고1**
대중매체이용(고2)	2796	56	중3>고2**, 고1>고2**

* p<.05, ** p<.01

(2) 취미교양활동

취미교양활동은 중학시절에 주요여가활동으로 더 많이 등장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엔 2학년 때보다 1학년 때 더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표 2-2〉 4차년간 취미교양활동 비교

취미교양활동(중2)	2796	48	중2>고1*, 중2>고2** 중3>고1**, 중3>고2** 고1>고2*
------------	------	----	---

* p<.05, ** p<.01

(3) 휴양휴식활동

중학교 2학년 때보다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1학년 때보다는 고등학교2학년 때 휴양휴식활동이 주요여가활동으로 더욱 부각되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학습량으로 인해 적극적인 여가활동보다는 단순 휴식적 여가활동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표 2-3〉 4차년간 휴양휴식활동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휴양휴식활동(중2)	2796	32	중2>중3**, 중2<고1*
휴양휴식활동(중3)	2796	28	중2<고2**
휴양휴식활동(고1)	2796	34	중3<고1**, 중3<고2**
휴양휴식활동(고2)	2796	40	고1<고2**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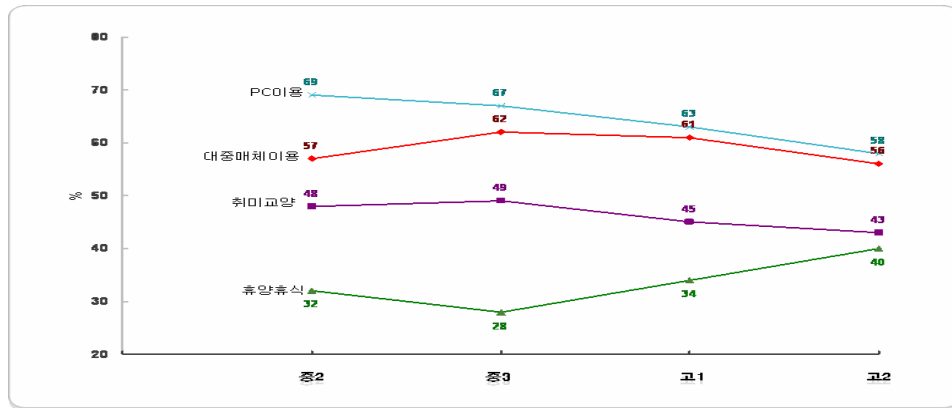
(4) PC이용

취미교양활동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학시절엔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고등학생때보다는 중학생때, 고2때보다는 고1때 더 많은 학생들이 PC이용을 주요여가활동으로 지목하였다.

〈표 2-4〉 4차년간 PC이용 여가활동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PC이용(중2)	2796	69	중2>고1**, 중2>고2**
PC이용(중3)	2796	67	중3>고1**, 중3>고2**
PC이용(고1)	2796	63	고1>고2**
PC이용(고2)	2796	58	

* p<.05, ** p<.01



<그림 2-1> 4차년간 4개 여가활동(PC이용, 대중매체이용, 취미교양, 휴양휴식) 추이곡선

(5) 신체활동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중학교 2학년 때 신체활동이 더 주요한 여가활동으로 등장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2-5> 4차년간 신체여가활동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신체활동(중2)	2796	15	중2>중3**
신체활동(중3)	2796	12	중2>고1**
신체활동(고1)	2796	11	중2>고2**
신체활동(고2)	2796	12	

* p<.05, ** p<.01

(6) 관람활동

관람활동은 중학시절에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고등학생 때보다 중학생 때 주요한 여가활동으로 더 많이 등장하였다.

<표 2-6> 4차년간 관람활동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관람활동(중2)	2796	11	중2<고1**
관람활동(중3)	2796	1	중2<고2**
관람활동(고1)	2796	16	중3<고1** 중3<고2**
관람활동(고2)	2796	16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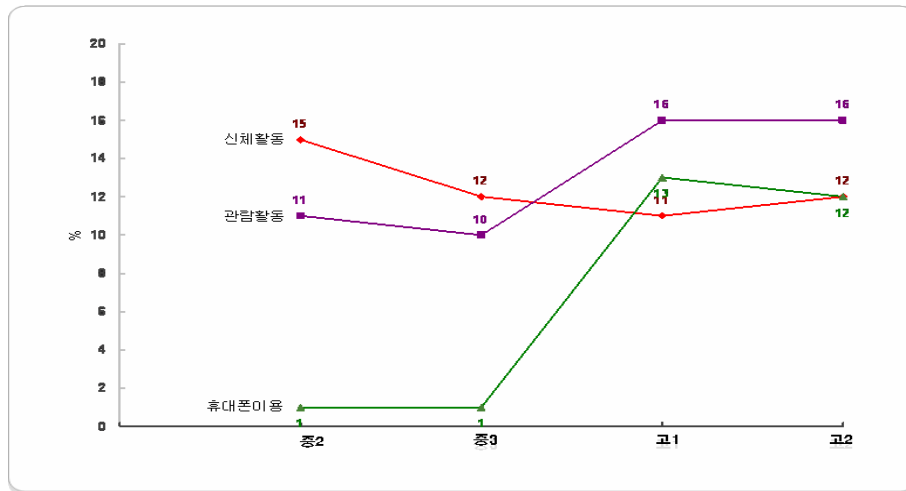
(7) 휴대폰이용

휴대폰이용은 고등학생 때보다 중학생 때 주요한 여가활동으로 더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7〉 4차년간 휴대폰이용 여가활동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휴대폰이용(중2)	2796	1	중2<고1**
휴대폰이용(중3)	2796	1	중2<고2**
휴대폰이용(고1)	2796	13	중3<고1**
휴대폰이용(고2)	2796	12	중3<고2**

* p<.05, ** p<.01



〈그림 2-2〉 4차년간 3개 여가활동(신체활동, 관람활동, 휴대폰이용) 추이곡선

(8) 도박잡기

신체여가활동과 마찬가지로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중학교 2학년 때 도박잡기활동(도박, 바둑, 화투 등)이 주요한 여가활동으로 더 많이 등장하였다.

〈표 2-8〉 4차년간 도박잡기활동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도박잡기활동(중2)	2796	1	중2>중3*
도박잡기활동(중3)	2796	0	중2>고1**
도박잡기활동(고1)	2796	0	중2>고2**
도박잡기활동(고2)	2796	0	

* p<.05, ** p<.01

(9) 음주흡연

중학생 때보다는 고등학생 때, 고1때보다는 고2때 더 많은 학생들이 음주흡연을 즐기는 양상을 보여주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탈적 여가행위의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2-9> 4차년간 음주흡연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음주흡연(중2)	2796	.2	중2<고1*
음주흡연(중3)	2796	.2	중2<고2**
음주흡연(고1)	2796	.3	중3<고2**
음주흡연(고2)	2796	.5	고1<고2**

* p<.05, ** p<.01

(10) 여행

여행은 신체여가활동이나 도박잡기활동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중2때 여행이 주요한 여가활동으로 더 많이 등장하였다. 이는 학년이 낮아 학습량이나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요하는 여행이 가능한 듯 보인다.

<표 2-10> 4차년간 여행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여행활동(중2)	2796	.2	중2>중3**
여행활동(중3)	2796	.1	중2>고1**
여행활동(고1)	2796	.1	
여행활동(고2)	2796	0	중2>고2**

* p<.05, ** p<.01

(11) 종교활동

중3때보다는 중2때, 중3때보다는 고등학생 때 종교활동을 주요한 여가활동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교회가 사교와 교육, 사회봉사라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증가된 학습량과 입시부담으로 시간에 허덕이는 고등학생들의 일종의 휴식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표 2-11> 4차년간 종교활동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종교활동(중2)	2796	.6	중2>중3**
종교활동(중3)	2796	.4	중3<고1**
종교활동(고1)	2796	.6	
종교활동(고2)	2796	.6	중3<고2**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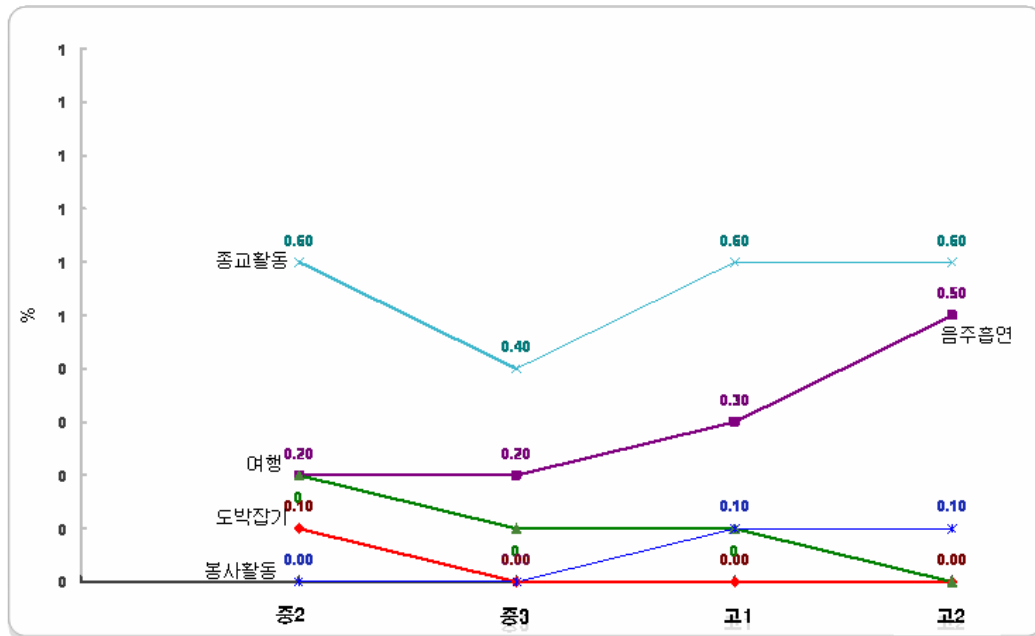
(12) 봉사활동

중학생 때보다 고2때 주요한 여가활동으로서 봉사활동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내신에서 사회봉사활동이 포함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반영해주고 있다.

〈표 2-12〉 4차년간 봉사활동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봉사활동(중2)	2796	0	
봉사활동(중3)	2796	0	중2<고2**
봉사활동(고1)	2796	.1	중3<고2*
봉사활동(고2)	2796	.1	

* p<.05, ** p<.01



〈그림 2-3〉 4차년간 5개 여가활동(도박잡기, 음주흡연, 여행, 종교, 봉사) 추이곡선

3) 여가제약

8개의 제약항목은 진학준비, 부모님 통제와 간섭, 경제적부담, 동반자결여, 여가시설부족, 접근성결여, 프로그램 부족, 방법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분석 결과 ‘동반자결여’를 뺀 진학준비, 부모님통제, 경제적부담 3항목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나머지 4항목은 또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중2부터 고2가 될 때까지 여가제약요인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4년에 걸쳐 일관되게 여가프로그램과 시설부족을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같이 즐길 상대가 없어 느끼

는 제약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도 또래들과 여가활동을 가장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나 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가동반자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진학준비를 세 번째 큰 요인으로 언급함으로써 중학교시절과 대조를 이루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 <표3-1>에서 <표3-8>에 잘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 때 보다는 고등학생 때 진학준비로 인해 여가활동의 제약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고등학생 때보다 중2때 부모의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 더 큰 여가제약을 경험하고 있었다. 중학시절보다는 고2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여가제약을 더 크게 경험하였는데, 점차 어른들과 유사한 용도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용돈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2때에는 프로그램과 시설부족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언급되었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문화공간의 디자인보다는 위치 및 서비스와 같은 요인에 더욱 민감하다는 박구원(2006)의 연구결과와 다소 통하는 부분이 있다.

<표 3-1> 4차년간 여가제약-진학준비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진학준비(중2)	499	2.61	중2<고1**, 중2<고2**
진학준비(중3)	304	2.50	중3<고1**, 중3<고2**
진학준비(고1)	409	3.13	
진학준비(고2)	453	3.24	고1<고2**

* p<.05, ** p<.01

<표 3-2> 4차년간 여가제약-부모통제간섭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부모통제간섭(중2)	515	2.94	
부모통제간섭(중3)	310	2.74	중2>고1**
부모통제간섭(고1)	417	2.66	중2>고2*
부모통제간섭(고2)	459	2.54	

* p<.05, ** p<.01

<표 3-3> 4차년간 여가제약-경제적부담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경제적부담(중2)	509	2.89	중2<고2*
경제적부담(중3)	305	3.01	중3<고2*
경제적부담(고1)	416	3.05	
경제적부담(고2)	459	3.06	

* p<.05, ** p<.01

〈표 3-4〉 4차년간 여가제약-동반자결여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동반자결여(중2)	518	2.17	NA
동반자결여(중3)	312	2.17	
동반자결여(고1)	417	2.10	
동반자결여(고2)	459	2.16	

* p<.05, ** p<.01

〈표 3-5〉 4차년간 여가제약-시설부족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시설부족(중2)	511	3.16	고1<고2*
시설부족(중3)	307	3.25	
시설부족(고1)	415	3.20	
시설부족(고2)	456	3.27	

* p<.05, ** p<.01

〈표 3-6〉 4차년간 여가제약-접근성부족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접근성부족(중2)	508	2.96	NA
접근성부족(중3)	305	2.93	
접근성부족(고1)	408	3.04	
접근성부족(고2)	457	2.97	

* p<.05, ** p<.01

〈표 3-7〉 4차년간 여가제약-프로그램부족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프로그램부족(중2)	503	3.22	중2<고2**
프로그램부족(중3)	305	3.18	중3<고2*
프로그램부족(고1)	408	3.26	고1<고2**
프로그램부족(고2)	453	3.39	

* p<.05, ** p<.01

〈표 3-8〉 4차년간 여가제약-방법무지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방법무지(중2)	506	2.85	NA
방법무지(중3)	309	2.91	
방법무지(고1)	415	2.77	
방법무지(고2)	454	2.76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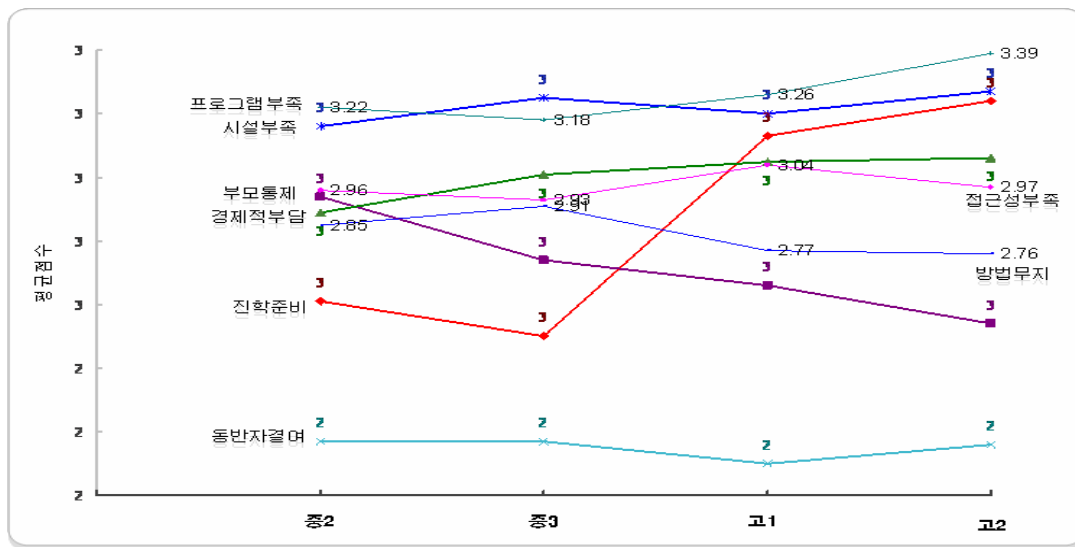
4) 여가만족도

중3때 어느 학년 때보다도 여가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2때보다는 고1때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1>의 주간여가시간 추이곡선에서도 나타났듯이, 중3때 주간여가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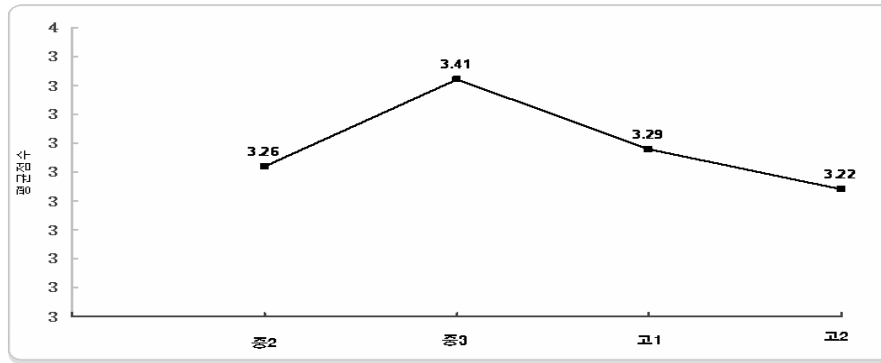
<표 4> 4차년간 여가만족도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여가만족도(중2)	2796	3.26	중2<중3**
여가만족도(중3)	2796	3.41	중3>고1**
여가만족도(고1)	2794	3.29	중3>고2**
여가만족도(고2)	2794	3.22	고1>고2**

* p<.05, ** p<.01



<그림 3> 4차년간 여가제약변인 추이곡선



<그림 4> 4차년간 여가만족도 추이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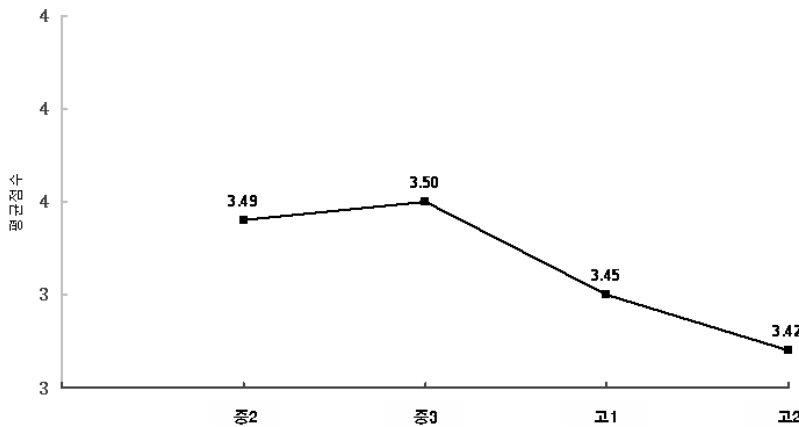
5) 삶 만족도

중학생 때가 고등학생 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시간이나 여가만족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시간은 곧 여가만족도를 고양시키고, 이어 삶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사려된다.

<표 5> 4차년간 삶 만족도 비교

	N	평균	대응비교 t검정
삶 만족도(중2)	2796	3.49	중2>고1*
삶 만족도(중3)	2793	3.50	중2>고2**
삶 만족도(고1)	2796	3.45	중3>고1**
삶 만족도(고2)	2796	3.42	중3>고2**

* p<.05, ** p<.01



<그림 5> 4차년간 삶만족도 추이곡선

3. 여가생활에 따른 자아관, 여가만족, 삶의 만족의 차이

1) 상관관계분석

통제할 변인을 추려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변인들 중 부모결혼과 형제유무는 대부분의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분석에서 변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 변인들을 제외한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표6>과 같다.

<표 6>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성별	-															
2. 월소득	-.02	-														
3. 부모학력	-.02	.39	-													
4. 거주지	-.07	-.05	-.05	-												
5. 여가시간	-.03	-.12	-.20	-.02	-											
6. 대중매체	.11	-.02	-.07	-.04	.01	-										
7. 취미교양	.10	-.02	.05	-.02	-.04	-.12	-									
8. 휴양휴식	.19	.02	-.01	.03	.01	-.11	-.21	-								
9. PC이용	-.28	.00	-.01	.01	.04	-.02	-.16	-.22	-							
10. 신체활동	-.27	-.02	.01	.01	.00	-.20	-.15	-.13	-.05	-						
11. 관람활동	.07	.06	.08	-.00	-.08	-.15	-.07	-.01	-.17	-.04	-					
12. 휴대폰	.19	.05	.03	-.04	.03	-.07	-.03	-.06	-.10	-.09	-.00	-				
13. 도박잡기	-.04	-.00	.01	-.03	.02	-.05	-.01	-.02	-.04	-.01	-.00	-.01	-			
14. 음주흡연	.02	-.01	-.02	.02	.03	-.09	.00	.02	-.10	-.04	.02	.01	.06	-		
15. 여행	.03	.04	.05	.00	-.04	-.08	-.06	.01	-.09	.03	.04	-.04	-.01	-.02	-	
17. 봉사	.06	-.04	-.06	.02	.02	-.04	-.05	.02	-.04	-.01	-.02	.01	-.01	-.01	-.01	-
																.04

	진학문제	부모통제	경제적부담	동반자결여	시설부족	접근성부족	프로그램부족	방법무지
1. 성별	-.03	.06	-.09	-.04	-.01	-.05	.02	-.06
2. 월소득	-.05	-.04	.04	-.01	-.02	-.06	-.02	-.05
3. 부모학력	.01	-.03	.01	-.05	.00	-.00	.05	.03
4. 거주지	.06	.01	.05	.04	.07	.04	-.00	-.06
5. 여가시간	-.01	.00	.03	.05	.01	.08	.08	-.00
6. 대중매체	-.05	.05	-.08	-.06	-.05	-.06	-.04	-.02
7. 취미교양	.00	.03	.00	-.03	.00	-.05	-.03	.02
8. 휴양휴식	.04	-.03	-.00	.01	.05	.03	.06	.06
9. PC이용	.03	-.06	-.02	-.05	-.06	-.02	-.04	-.01
10. 신체활동	-.02	-.06	.03	.02	.02	-.00	-.02	.01
11. 관람활동	.01	-.02	.00	-.04	-.12	-.02	-.07	-.04
12. 휴대폰	-.03	-.05	-.06	.02	.03	.03	-.03	-.08
13. 도박잡기	.00	.02	-.02	.02	.00	.04	.05	.07
14. 음주흡연	-.02	.02	-.01	-.01	.01	-.02	.03	.02
15. 여행	-.01	.02	.04	.06	-.04	-.02	.02	-.01
16. 종교	.00	.04	.06	.11	.07	.11	.05	.01
17. 봉사	.00	.02	-.01	.10	.01	.02	.04	.01

주: 짙은 색으로만 칸이 채워진 경우는 $p < .05$, 숫자도 굵은 경우는 $p < .01$

2) 1차년도(중2) 경로분석결과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성별과 부모교육연수가 여가시간과 여가유형을 결정짓는 데는 영향을 주었지만, 여가제약변인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남학생일수록, 부모교육연수가 짧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았으며, PC이용과 신체활동에서만 남학생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구월소득이 높을수록 휴양휴식활동이 많았으며, 부모교육연수가 길수록 취미교양활동이 많았다(<표7-1>참조).

한편 여가제약변인들은 여가시간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나 일부 제약변인들이 여가유형을 결정짓는 데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시설부족감을 적게 느낄수록 관람활동을 많이 하였으며, 동반자결여의식이 높을수록 종교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부여가유형 변인들은 자아관 형성과 여가만족감에 영향을 주었다(<표7-2>참조). 결과 일부를 보면 신체활동, 관람활동, 취미교양활동, 여행은 자신감을 높여주었으며, 취미교양활동, 종교활동은 정서조절감을 향상시켜주었다. 한편 종교활동, 신체활동은 많이 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반면, 대중매체이용, 휴식휴양활동, 휴대폰이용, 봉사활동은 많이 할수록 오히려 여가만족감을 저하시켰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일부는 자아관 변인들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남성일수록 성편견, 집단주의, 자신감, 낙인성향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연수가 길수록 자신감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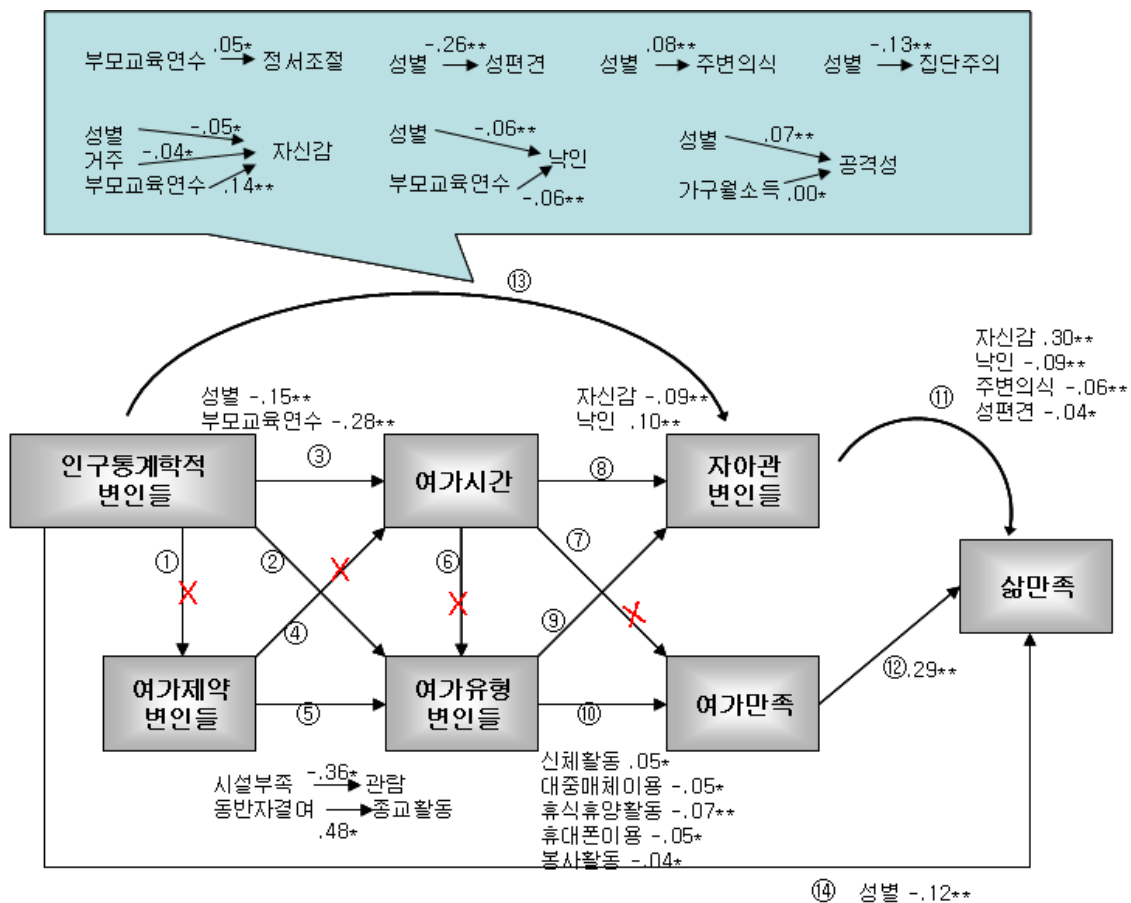
승하고, 낙인성향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여가시간의 증감이 여가유형과 여가만족감을 결정짓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일부 자아관 변인들에 영향을 주었다.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자신감은 감소하고 낙인성향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그리고 여가만족감은 삶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이고, 자신감이 크고, 낙인주의와 주변 의식, 성편견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가만족감이 클수록 삶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1차년도(중2)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여가유형들과의 관계(②번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대중매체활동	성별	.48*
휴식휴양활동	성별	.98**
	가구월소득	.00*
PC이용	성별	-1.33**
취미교양활동	성별	.44*
	부모교육연수	.11*
관람활동	성별	.69*
신체활동	성별	-1.51**
휴대폰이용	성별	1.24

* p<.05, ** p<.01



<그림 6-1> 1차년도(중2) 경로분석

<표 7-2> 1차년도(중2) 여가유형들과 자아관변인들과의 관계(⑨번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자신감	신체활동	.10**
	관람활동	.07**
	취미교양활동	.11**
	여행	.05*
	종교활동	.07**
낙인	대중매체이용	-.06*
	종교활동	-.05*
	음주흡연	.17**
주변의식	취미교양활동	.06**
공격성향	PC이용	.05*
	취미교양활동	.09**
	종교활동	-.05*
	음주흡연	.13**
	휴대폰이용	.04*
정서조절	취미교양활동	.07**
	종교활동	.05*
성편견	신체활동	.07**
	PC이용	.06**
	음주흡연	.06**
집단주의	신체활동	.06**
	봉사활동	.05**

* p<.05, ** p<.01

3) 2차년도(중3) 경로분석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부모교육연수가 여가시간, 여가제약, 여가유형을 결정짓는 데는 모두 영향을 주었다, 부모교육연수가 짧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았으며, 부모교육연수가 길수록 동반자 결여가 여가제약으로 작용하여 취미교양활동을 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일수록 신체활동과 PC활동을, 여학생일수록 대중매체활동과 관람활동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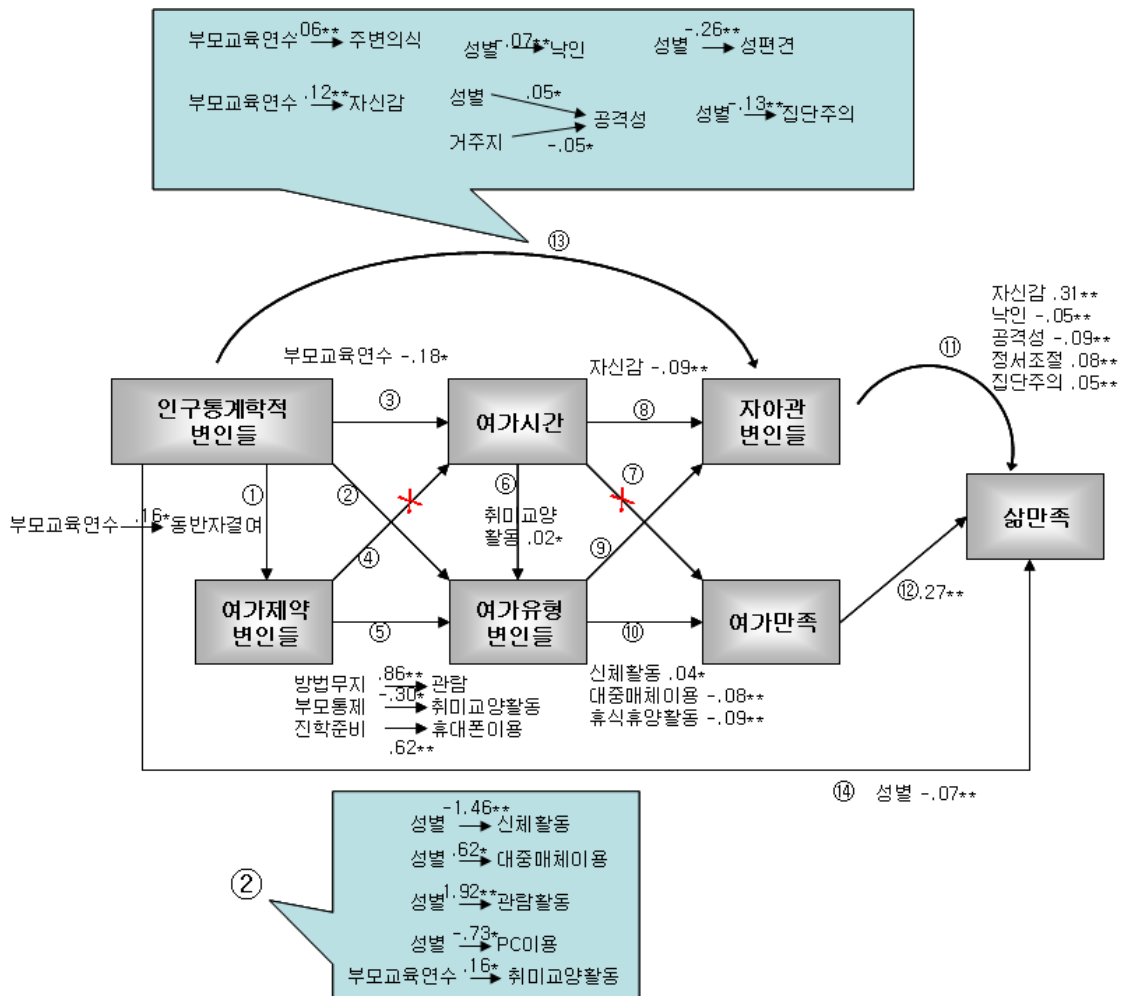
한편 여가제약변인들은 여가시간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나 일부 제약변인들이 여가유형을 결정짓는 데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방법을 모를수록 관람활동을, 부모통제가 심할수록 취미교양활동을, 진학준비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한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취미교양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중2시기와 마찬가지로 여가시간의 증감이 여가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자아관 변인들에는 영향을 주었다,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자신감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

져왔다. 일부여가유형 변인들은 자아관 형성과 여가만족감에 영향을 주었다. PC이용과 여행을 할수록 정서조절감을, 관람활동, 휴식휴양활동, 음주흡연을 할수록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의식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신체활동을 많이 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았지만, 대중매체이용, 휴식휴양활동은 많이 할수록 오히려 여가만족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일부는 자아관 변인들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남학생일수록 성편견, 집단주의, 낙인성향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연수가 길수록 자신감과 주변의식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부 자아관 변인들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그리고 여가만족감은 삶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고, 자신감, 정서조절, 집단주의 의식이 높고, 낙인성향과 공격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가만족감이 높을수록 삶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2차년도(중3) 경로분석

<표 7-3> 2차년도(중3) 여가유형들과 자아관변인들과의 관계(⑨번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낙인	대중매체이용	-.06*
	봉사활동	.04*
	음주흡연	.17**
주변의식	휴식휴양활동	.06**
공격성향	PC이용	.06**
	휴식휴양활동	.06**
	음주흡연	.08**
정서조절	PC이용	.06*
	여행	.05*
	종교활동	.07**
집단주의	관람활동	.05*
	휴식휴양활동	.06**
	음주흡연	.05*

* p<.05, ** p<.01

4) 3차년도(고1) 경로분석결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부모교육연수가 짧고 가구월소득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구통계학적변인들이 여가제약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가유형을 결정짓는 데는 영향을 주었다, 남학생일수록 신체활동과 PC이용, 음주흡연활동을, 여학생일수록 휴대폰이용이나 휴양휴식활동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부모교육연수가 길수록 관람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시절과 마찬가지로 여가제약변인들은 여가시간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나 일부 제약변인들이 여가유형을 결정짓는 데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여가방법을 알수록 대중매체이용을, 시설부족을 느낄수록 취미교양활동을, 같이 즐길 동반자가 결여될수록 휴대폰을 이용을, 시설부족감을 적게 느끼고 여가시간을 보낼 방법을 모를수록 관람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취미교양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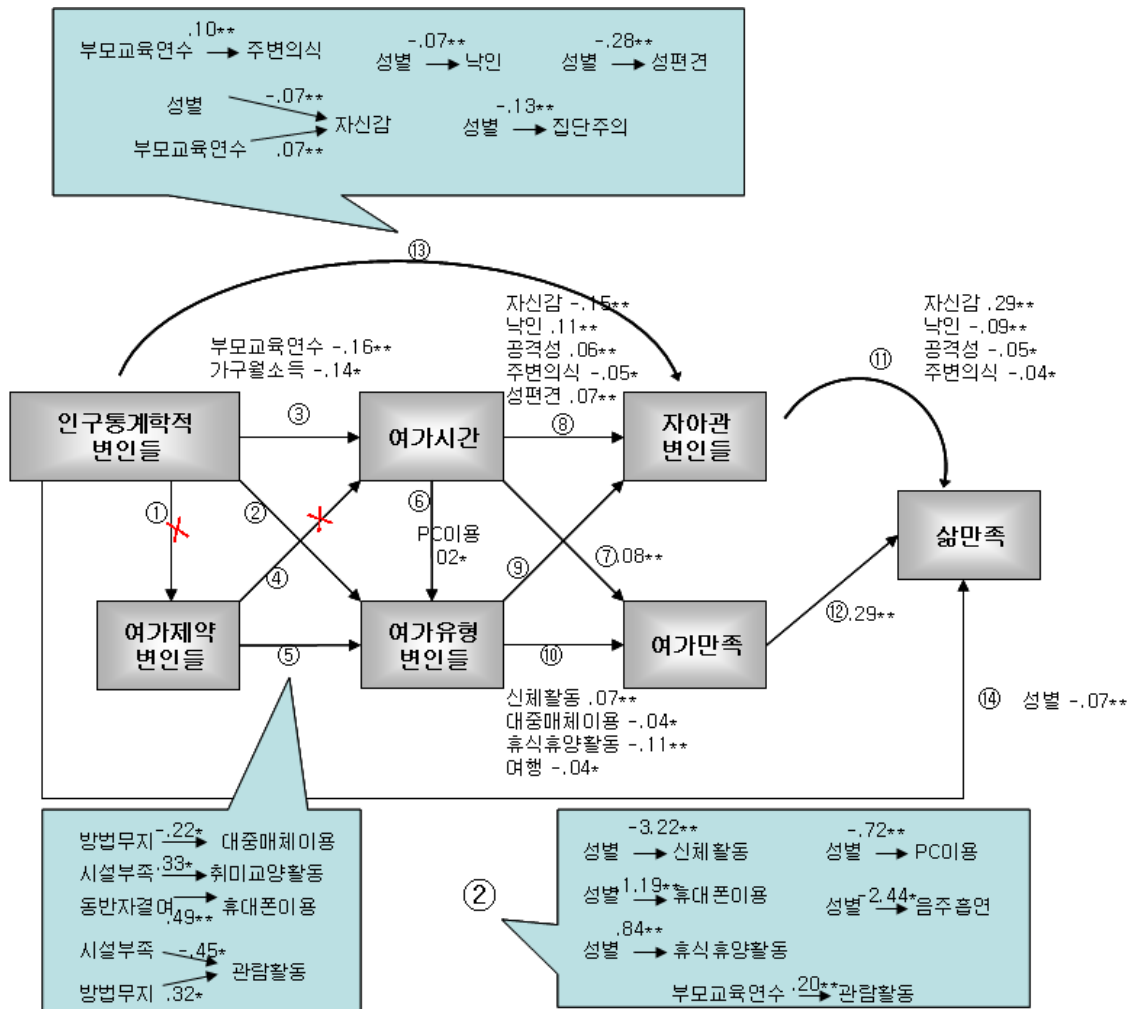
그러나 중학시절과는 달리 여가시간의 증감이 여가만족감에 영향을 주었다.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여가만족감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여가시간은 여가유형과 자아관에 영향을 주었다.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자신감과 주변의식은 감소하고 오히려 낙인성향, 공격성, 성편견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PC이용이 증가하였다.

일부여가유형들은 자아관 형성과 여가만족감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대중매체이용을 적게 하고 관람활동을 많이 할수록 자신감이, 관람활동과 음주흡연을 많이 할수록 공격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활동을 많이 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매체이용, 휴식휴양활동, 여행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여가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일부는 자아관 변인들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남학생일수록 성편견, 집단주의, 낙인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연수가 길수록 자신감과 주변意識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부 자아관 변인들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그리고 여가만족감은 삶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고, 자신감이 크고, 낙인성향과 공격성, 주변意識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가만족감이 높을수록 삶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 3차년도(고1) 경로분석결과

<표 7-4> 3차년도(고1) 여가유형들과 자아관변인들과의 관계(⑨번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자신감	대중매체이용	-.09**
	관람활동	.05*
낙인	음주흡연	.17**
	관람활동	.06**
공격성향	음주흡연	.09**
	종교활동	.05*
성편견	취미교양활동	-.05*
	음주흡연	.04*

* p<.05, ** p<.01

5) 4차년도(고2) 경로분석결과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여가시간, 여가유형, 여가제약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연수가 짧을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일수록 신체활동과 PC이용을, 여학생일수록 관람활동, 휴대폰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구월소득이 높을수록 관람활동을 했으며, 낮을수록 휴양휴식활동을 하였고, 부모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취미교양활동을 하였다. 인구통계학적변인들이 여가제약과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월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제약요인으로서 진학준비를 부모교육연수가 길수록 동반자 결여를 지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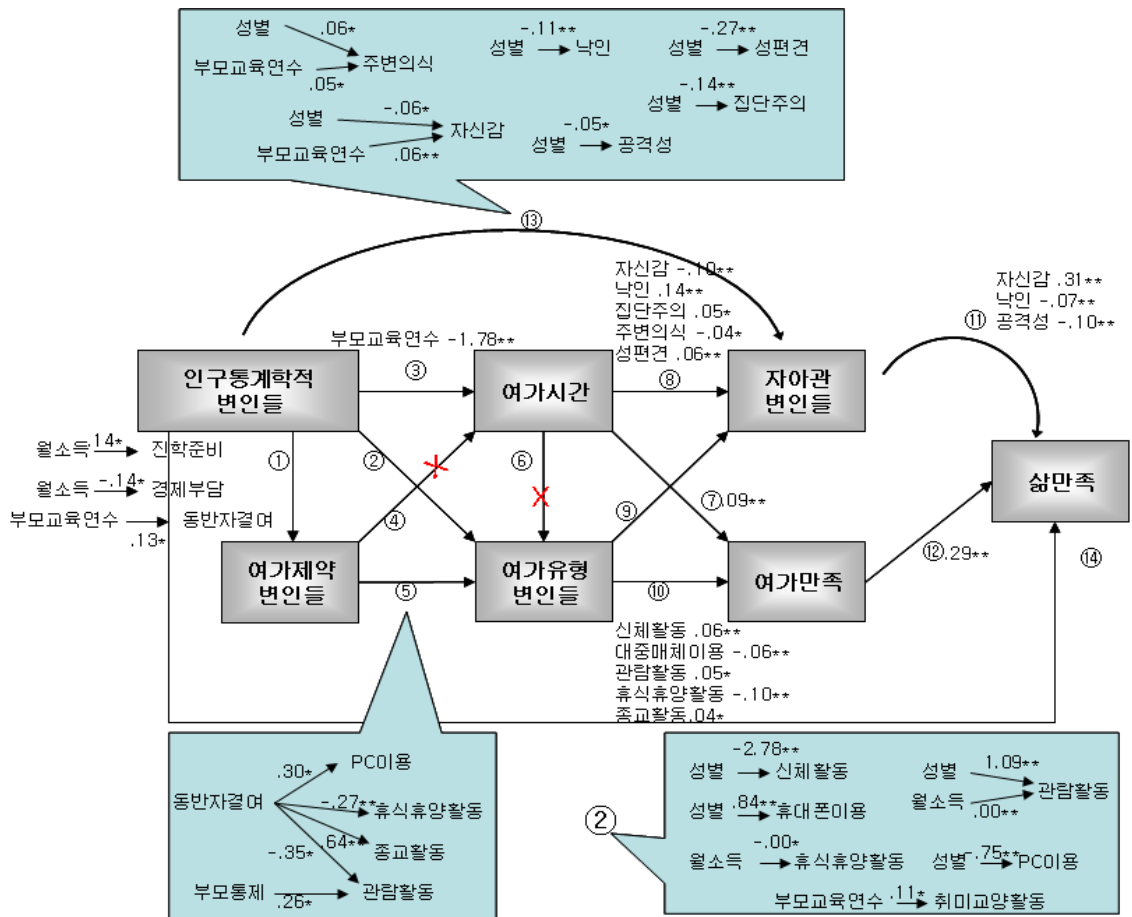
지난 3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여가제약변인들은 여가시간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나 일부 제약변인들이 여가유형을 결정짓는 데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동반자가 부족할수록 PC이용과 종교활동을 많이 하였으며, 부모통제가 심할수록 관람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중학시절과는 달리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는 줄곧 여가시간의 증감이 여가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여가만족감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여가유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여가시간은 자아관 변인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자신감과 주변意識은 감소하고, 낙인성향, 집단주의, 성편견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가유형에 따른 자아관 형성과 여가만족감의 차이 중 일부를 살펴보면, 신체활동, 종교활동은 자신감 향상과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활동과 관람활동, 종교활동을 많이 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매체이용, 휴식휴양활동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여가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일부는 자아관 변인들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남학생일수록 성편견, 집단주의, 낙인성향, 공격성,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연수가 길수록 자신감과 주변의식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부 자아관 변인들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그리고 여가만족감은 삶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고, 가구월소득과 부모교육연수가 길수록 삶 만족감이 높았으며, 자신감이 크고, 낙인성향과 공격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가만족감이 높을수록 삶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 4차년도(고2) 경로분석

<표 7-5> 4차년도(고2) 여가유형들과 자아관변인들과의 관계(⑨번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자신감	신체활동	.12**
	관람활동	.09*
	PC이용	-.07*
	종교활동	.17**
낙인	대중매체이용	-.07*
	PC이용	-.09**
	종교활동	-.19**
	음주흡연	.63**
공격성향	음주흡연	.45**
	방사활동	-.39*
정서조절	신체활동	.14*
	PC이용	.09*
	종교활동	.21**
	휴대폰이용	.13*
성편견	관람활동	.08*
	음주흡연	.27**
주변의식	PC이용	.11*
	도박잡기	1.23*
집단주의	신체활동	.20**
	대중활동	.10*
	관람활동	.18**

* p<.05, ** p<.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청소년들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유형이 현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여가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곡선에 따른 주간여가시간을 보면 중학시절 성장과 함께 여가시간곡선도 함께 상승하였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급하강함을 알 수 있다. 4차년도 전반에 걸쳐 매체이용이 가장 보편적인 여가활동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다소 정적이고 비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학 시절에는 신체여가활동이 관람활동보다 더 주요한 여가활동이었으나,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중학시절에 비해 휴양휴식활동과 음주흡연이 빈번히 이루어지며, 관람활동이 신체활동을 앞지름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청소년기에 넘치는 에너지를 제대로 발산할 수 있는 계기를 갖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단순한 여가활동에 치중하다보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서 ⑧번에 해당하는 결과가 이러한 문제를 잘 반영해준다.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자신감은 감소하고, 오히려 낙인성향

이나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성향은 증가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달리 설명하면 여가시간의 양적 증가만으로는 자아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가유형변인들이 자아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로모형 ■번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표7-2~5의 결과를 보면 신체활동이 자신감 증대와 정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반면, 대중매체 이용이나 PC이용은 낙인성향과 공격성향과 같은 부정적인 성향을 증가시키는 데 단골변인으로 등장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적합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자아와 만족감이 창출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준 결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PC이용이나 대중매체이용과 같이 기기를 통해 수동적인 즐거움을 얻는 여가활동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하나의 교과과정으로서 여가교육수업을 실시할 경우 기술이 필요한 활동은 기술을 가르치고, 다양하고 새로운 여가경험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둘째는 선천적으로 획득된 환경에 의해 청소년들의 여가적 삶이 통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에서 측정한 여가제약요인은 진학문제, 부모통제, 경제적 부담, 동반자결여, 여가시설부족, 접근성미비, 프로그램부족, 방법무지로 외부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구조적 요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2학년까지 4차년도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생들의 여가시간이 여가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회구조적인 제약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여가시간 뿐 아니라 여가유형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여가의 양과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여가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여러 면에서 부모, 즉 가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로모형의 ①②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밝혀진 것과 같이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은 부모를 둔 가정의 청소년들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청소년들의 여가적 삶이 특정 형태로 정형화되어 가는 징후가 보인다. 월소득과 부모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진학준비나 동반자 결여라는 요인들이 여가제약으로 두드러지면서, 결국 4차년도 전반에 걸쳐 부모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취미교양활동이나 관람활동은 월소득이나 부모교육연수와 정적 관계를 보이는 여가유형으로 밝혀졌다. 마치 부모의 문화적, 경제적 수준이 자녀들의 여가생활을 양보다는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듯 보인다. 여가유형이 가정환경에 의해 정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한 예로서 최근 주5일제 실시와 함께 초등학교들의 경우 방과 후 특기적성, 동아리활동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과 후 특기적성은 사설학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동아리활동은 부모들을 교사로 고용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 실시된 이러한 노력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부질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학습위주의 보충수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개입이 없다면 학년별 여가만족도와 삶 만족감 곡선이 보여주었듯이 그들의 삶과 미래는 우울한 성장곡선을 계속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가시간의 양과 유형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감 형성에 기여하는 주요한 조건이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중고등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여가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은퇴 후까지도 평생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말이다.

<참 고 문 헌>

- 박구원(2006).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고찰. 「문화관광연구」, 8(1): 7-24.
- 박성진(2007-09-11 11:31). 서울청소년 50% “화목한 가정이 행복조건.” 연합뉴스.
- 서우석(2007).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 사회경제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1): 273-302.
- 양선정(2001). 청소년의 여가활동 분석을 통한 여가활용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희 · 민현선(2004). “청소년의 여가활동 특성과 여가장애에 따른 여가만족도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2(12): 231-251.
- 이은희 · 민현선(2004).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여가동기와 여가기능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243-258.
- 조국남(2006). 청소년 여가활동의 실태 및 시설수용에 관한 조사연구. 「시민교육연구」, 37(1): 169-192.
- 조현숙(2007-09-29 10:26). 청소년 한해 평균 109명 자살. 해럴드 생생뉴스.
- Erikson, E.(1998).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Garton, A. F., Harvey, R., & Price, C.(2004). Influence of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on adolescent leisure participatio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6(1): 18-24.
- Rapoport, R. & R. N. Rapoport(1975). *Leisure and the family life cycl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eschke, L. L. & Silbereisen, R. K.(1998). The association of childhood play and adolescent-parent interactions with German adolescent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 458-486.
- Schmitt-Rodermund, E. & Vondracek, F. W.(1999). Breadth of interests, exploration, and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55, 298-317.